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4~1/3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3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4	비움과 금강경:근본불교와 대승에서의 공	시현 번역과 해설	사유수
5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6	속담속에 담은 불교 명쾌하고 쉬운 불교	김성철	오타쿠
7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8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 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9	초기불교 이해	각묵 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10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11) 마음을 만드는 뇌의 구조	문일수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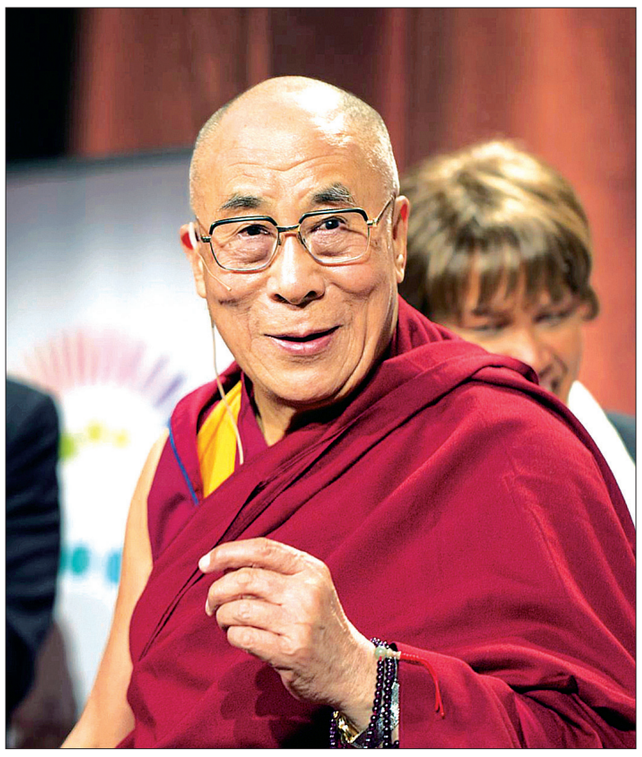
책세상

달라이라마 글에 담긴 정치철학 면면들



달라이라마의 정치철학
수바쉬 C. 편집
허우성 옮김
운주사/ 5만원

달라이라마 사상 담은 글 100편
그 안 담긴 정치철학, 사상 확인
비폭력, 민주주의를 꾸준히 주장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의 숭산 스님과 함께 세계 4대 생불(生佛)로 추앙받는 달라이라마〈사진〉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그의 말 한마디, 행보는 세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6살의 나이에 제14대 달라이라마로 즉위한 이후, 현대 티베트 역사와 함께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말 그대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특히 1959년 인도로의 망명 이후 그의 삶은 오로지 티베트 민족의 염원을 대변하고 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했다. 그럼에도 그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그의 사상과 행동이 단지 티베트인의 이익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12번째 대원학술총서 〈달라이라마의 정치철학〉은 비폭력, 자비, 평화의 신념을 꿋꿋하게 지켜온 달라이라마의 정치철학과 사상을 담은 대표적인 글 100편을 모아 엮은 것이다.

이 책은 티베트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정치·사회·도덕·영적 사안에 대해 여러 포럼에서 발표된 달라이라마의 담화문, 연설, 성명, 인터뷰 등을 선별한 것으로 주로 1997년부터 2013년 사이에 발표된 글들로 이뤄져 있다.

달라이라마는 보통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책에 실린 글들도 몇몇 글을 제외하고 대부분 그렇다. 즉흥 연설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두고 있거나 사상의 기저를 이루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의 진정성이 온전히 담겨 있는 목소리를 담고 있는 점이 이 책이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이다.

이 책에서 드러나는 달라이라마의 정치적, 사상적 입장은 어떨까.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해결을 주장한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나 독립이 아니라, 티베트 독자적인 문화의 정체성, 그리고 언어, 종교, 가치, 전통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치권을 갖기를 원한다.

달라이라마는 민주주의의 철저한 신봉자이기도 하다. 입법, 행정 및 사법 기관들이 지정된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작동하고,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의 독단적인 권력에도 반대한다. 당연히 티베트 정치에 민주주의를 도입해오고 있으며, 그 자신의 모든 권력을 이양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달라이라마는 마르크스주의자나 사회주의자에 가깝다. 스스로 사회 경제이론에 관한 한 자신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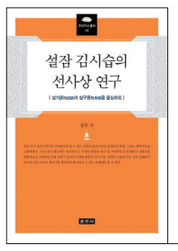
달라이라마는 "보편적 책임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열쇠"라고 본다. 즉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이나 가족, 국가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 세계평화, 환경문제 등에서 보듯이, 인류는 이제 하나의 운명공동체이며, 이러한 공동의 위기를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모두가 보편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게 달라이라마의 주장이다.

이 책을 통해 1950년 16살의 나이로 국가원수의 역할을 맡은 이래, 특유의 인내심, 무한한 관용, 절대적인 평정, 긍정적인 낙천주의로 역경에 처한 티베트인의 희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킨 달라이라마의 삶과 사상, 그 중에서도 정치, 사회적인 분야에서의 생각과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책을 번역한 허우성 경희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역자 해설에서 "달라이라마는 자비와 공을 가르친다. 하지만 그에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국가와 독재국가의 차이는 허상이 아닌 현실이고 진실"이라며 "자비, 정의, 평등을 불교 원리라 하고 이를 다당제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 체재와 연결한 것은 불교 경전에서가 아니라 격동하는 세계사의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얻는 결과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달라이라마가 인류의 스승인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탐진치를 잘 다스려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고, 세계적 차원에서는 그 자비심을 확장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달라이라마에게 자비심과 자유 그리고 평화는 모두 하나다"라고 밝혔다.

김시습 저술 속 선사상 조명하다



설잠 김시습의 선사상 연구
철우 지음
운주사/ 2만8000원

설잠 김시습(1435~1493)은 조선시대 천재 문인으로 생육신의 사람이었다. 21세 때 삼각산 중흥사에서 공부하던 김시습은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痛忿)하여 나흘 동안이나 두문불출 단식한 뒤, 읽던 책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방랑길에 올랐다.

스스로를 '방외인(方外人)'이라 할 정도로 세상의 격식에 자유로웠던 김시습을 문인 내지 기인으로는 여겨도 그를 불교 승려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 그는 설잠(雪岑)이라는 법명을 가진 승려였으며, 실제로도 〈화엄석제〉 〈일승법계도주병서〉 〈연경별찬〉 〈십현담요해〉 〈조동오위요해〉 등의 수준 높은 불교서를 저술하기도 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이 펴낸 학술서 〈설잠 김시습의 선사상 연구〉는 승려로서의 김시습의 선사상을 그의 저술을 통해 분석·조명하고 있다.

특히, 저술들에 나타나는 불교사상을 화엄의 성기론과 천태의 성구론, 즉 '불성론'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그가 제창하고 있는 불교사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의 불교사상, 나아가 한국불교사상사 내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이에 저자 철우 스님은 "설잠의 사상 전체가 선사상의 입장에서 화엄과 천태를 재해석하는 독특한 철학적 세계를 구축했다"며 "'선(禪)'을 통한 그의 불교사상은 동북아 불교의 전통을 반영하면서도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계승했다. 불교와 유(儒)·도(道) 양교를 회통하고, '선(禪)'과 정토(淨土)를 회통시켜서 '생활선(生活禪)'을 제창한 점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신중일 기자

현대인의 감정, 어떻게 다뤄야 하나

진흥원, 〈불교문화〉 2월호 발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행하는 불교계 대표 대중문화지인 월간 〈불교문화〉 2월호(통권 제282호)가 발간됐다.

2월호 특집은 '현대인의 감정, 어떻게 다뤄야 하나'로 감정이란 과학적으로 무엇인지, 불교에서 보는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수행법을 소개하고 있다.

김학진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는 '감정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감정은 뇌와 신체 간의 소통 장애이며, 감정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최적의 감정 해소 방식을 찾아가는 자기 감정 인식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는 '불교에서 보는 감정'을 통해 불교에서 감정을 느낌, 수라 부르고 느낌은 업보의 연속으로써 윤회적 삶을 성립시키는 중심 역할이라고 했다.

권석만 서울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불교의 계정혜 삼학으로 부정 정서 다스리기'를 주제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부정 편향을 잘 이해하고 부정 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祝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全7권 完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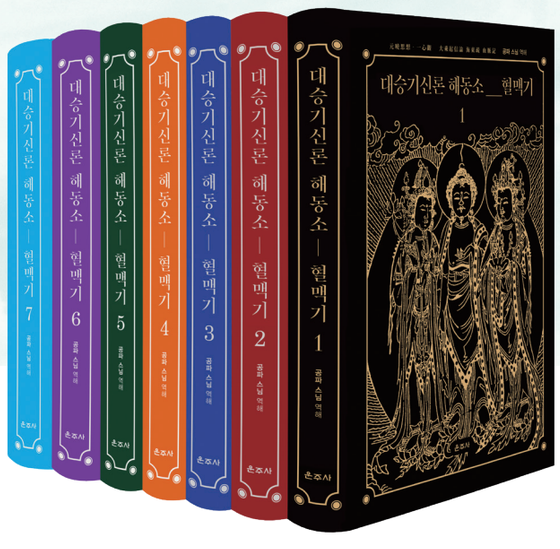
大乘起信論 海東疏 血脈記

기신론의 완결판!!!

기신론 해동소 별기를
현대식 어휘로
완벽하게 풀이하였다.

이것이 대승불교다!

대승불교 중흥에는
이 혈맥기 혁명밖에
없다.



원효센터 공파스님 역해/신국판/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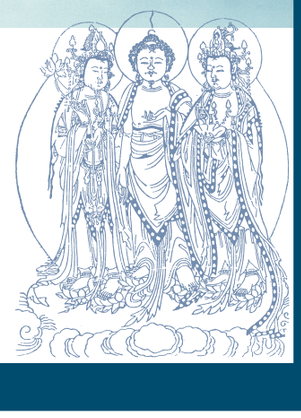
만만한 게 기신론이다. 기신론 안 가르친 스님이 없고 기신론 안 배운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자신에 대해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신론의 핵심인 대승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명보살의 혈통과 원효성사의 맥박을
펄펄 뛰게 살려놓은

이 혈맥기를 모르고 불교를 말하면 반풍수고
이 혈맥기를 벗어난 수행은 사이비다.

그만큼 이 혈맥기는 대승불교 믿음을 일으키는 데
독보적 필독서다.



• 1권 392쪽, 20,000원 • 2권 424쪽, 20,000원 • 3권 384쪽, 20,000원 • 4권 428쪽, 20,000원 • 5권 468쪽, 23,000원 • 6권 492쪽, 25,000원 • 7권 588쪽, 3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